

사망사고 ‘0’…오명 벗은 광주-대구고속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11.3명 사망…‘魔의 고속도로’ 악명

2차선→4차선 확장 1년…물류비 감소·통행량 30% 증가

매년 십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마(魔)의 고속도로’라는 악명을 떨쳤던 ‘광주-대구간 2차선 고속도로(구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지 1년 만에 오명을 벗었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왕복 2차선이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 지난해 12월 22일 ‘광주-대구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개통한 이후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2012년 13명, 2013년 12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연평균 1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의 연평균 사망자 6.8명을 크게 웃돌아 ‘마의 고속도로’로 불린 것을 고려하면 확장 개통으로 도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왕복 2차선으로 된 탓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나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고 중앙선 분리대까지 설치되면서 사고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확장 개통으로 영호남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눈에 띈다. 고속도로 연장이 182km에서 172km로 10km 줄어들고 통행 제한속도도 시속 80km에서 100km로 빨라지면서 광주~대구까지 최소 2시30분

■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전후		
	확장전	확장후
사망사고(연평균)	11.3명	0명
통행량(1일왕복)	1만1208대	1만4582대(30%▲)
도로구조	왕복2차선 중앙분리대×	4차선 중앙분리대○
연장	182km	172km
제한속도	80km/h	100km/h

에서 3시간가량 걸렸던 것이 2시간대로 줄었다.

물류 측면에서는 비용이 대폭 감소됐고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영호남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차량 통행량도 대폭 늘었다. 개통 이후 12월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은 하루 평균 1만45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208대보다 무려 30.1% 증가했다.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리산과 가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해인사, 덕유산, 경주 등 유명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 서다.

다만, 구간을 단축하고 직선화하면서 교량을 150개(총연장 12.9km)나 건설하면서 결빙 등 겨울철 안전에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8고속도로는 지난 1984년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고 영호남 화합을 위해 건설됐다. 국내 유일의 왕복 2차선 도로인데다 중앙분리대마저 없어 사고가 잇따르는 등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요구에 따라 총 사업비 2조349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착공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도학숙 입학생 346명 모집

내달 16~20일 시·군청 접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학하는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요람인 남도학숙이 내년 입학생 346명을 모집한다. 기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에게만 개방했던 입사 문호를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까지 확대했다.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도 신설했다.

모집 인원은 남학생 178명, 여학생 168명이며 광주와 전남은 각각 173명(남 89명, 여 84명)씩이다.

선정 결과는 내년 2월 7일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입사 기간은 내년 2월 20일부터 28일까지다.

남도학숙은 지난 1994년 인재양성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도민의 성금을 기반으로 건립됐으며 지금까지 1만432명의 학생들이 학숙을 거쳐 사회로 진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동지죽 먹는 날

동지(冬至)인 21일 광주시 북구 용두동 용두어린이집 원생들이 동네 집 대문에 동지죽을 뿌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선조들은 팔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동지에 팔죽을 뿌어 대문과 장독대 등에 뿌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교, 내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

중1 교육과정, 역사 과목 제외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내년도 1학년 생들의 교육과정에 사용하려 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광주지역 고등학교 46개교가 ‘2017학년도 고1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39개 일반계고와 8개 특성화고, 1개 특목고, 2개 특수학교 등 46개교는

내년도 한국사 과정을 위해 학생들을 대신해 국정교과서 1만4700부를 미리 주문했다가 부실, 왜곡·편향 서술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량 취소했다.

광주지역 역사교사들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뒤 총론부터 ▲전근대 ▲지역사 서술 ▲근현대 분야로 나뉘 부실, 왜곡·편향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5월 18일 광주

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과잉 진압하였다’고 기술,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대학생 시위의 앞뒤 관계를 바꿔 서술해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희 정부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해 정치는 1.7쪽, 안보나 경제 성장은 3.3쪽에 걸쳐 서술하는 등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희 관련 서술(18년)은 크게 늘리는 반면, 6월 항쟁 이후 30년 세월은 4

쪽 안팎에 그쳐 균형성의 원칙을 어겼다 는 비판도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이들 학교가 주문을 취소한 것 외에 1학년에 편성된 한국사 과정을 모두 2~3학년으로 옮겨갔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90개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역사 과목을 제외키로 했고 전남 교육청도 250개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녘 17:25

달출몰 01:00
달지름 13:13

독감조심!

흐리고 비가 오겠고 지역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10/11	보통	비온뒤 갠	9/10
목포	9/10	순천	비온뒤 갠	11/11
여수	11/11	영광	가끔호리고비	9/10
나주	9/9	진도	비온뒤 갠	9/10
완도	10/11	전주	비 또는 눈	8/10
구례	9/10	군산	비 또는 눈	8/8
강진	9/10	남원	비 또는 눈	8/10
해남	9/10	축산도	비온뒤 갠	8/9
장성	8/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부	서~북서 3.0~4.0	서~북서 3.0~4.0
앞바다	남서~서 2.0~3.0	서~북서 2.0~3.0
남해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서부	남서~서 2.0~4.0	서~북서 2.0~4.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24	08:28
	13:45	20:49
여수	09:26	03:42
	22:16	15:43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2/4	0/5	-2/8	3/8	1/6	-3/6	-1/6

◇생활지수

	보통
	보통
	관심

겨울 폭우?…광주·전남 최고 120mm 비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중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

게 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23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3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이다. 23일 예상 적설량은 1~5cm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기 마친 지병문 전남대총장 명퇴 신청

직무대리에 이용복 부총장

지병문 전남대 전 총장이 내년 2월 교단을 떠난다.

지 전 총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 내년 2월 28일자로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지 전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것, 총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언급한 뒤 “제게는 영광이었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 교수로서의 임무 수행에는 소홀함이 있었다.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학과로 돌아가 강의와 연구를 다시 시작한다

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두고 가겠다. 영원한 ‘전대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전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글을 맺었다.

지 총장은 총장 임기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5·18민주공원 준공식 및 상징조형물 제막식, ‘아하! 학습공동체 2016학년도 2학기 성과발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 총장 임기 만료에도 신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이용복(67·약학대 교수) 부총장이 총장직무대리를 맡아 당분간 대학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사업사업화교육 수강생 모집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유도 및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사업사업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신사업아이템 사업화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지원

선정규모

교육프로그램별 25명 수강생 선발

교육비용

전액 국비지원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

교육일정 및 문의처

지역	교육 프로그램명	모집기간	교육일정	교육기관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찾아가는 그린코디 및 판매전략	~16.12.25	16.12.26~17.01.12	은빛꽃꽃이학원	031)743-4500
광주광역시	저렴한 천연재료와 음료로 건강을 지켜주는 카페	~16.12.26	16.12.27~17.01.17	광주제일직업전문학교	062)226-7373
충청북도 청주시	건강헬스카페	~16.12.28	16.12.29~17.01.18	조혜성요리학원	043)236-5602
울산광역시	맞춤형음료 배달서비스	~17.01.02	17.01.04~17.01.18	엠제빵직업전문학교	052)266-4900
서울특별시	콘텐츠로 창업한다. 소셜미디어(SNS) 및 카드뉴스 제작법	~17.01.04	17.01.05~17.01.18	노노스창업교육학원	02)508-3692